

■ 박근종 칼럼

극도의 불안에 휩싸인 글로벌 자산시장, 실물경제로 전이 막을 선제 대응을

글로벌 자산 시장이 극도의 불안에 휩싸이며 출렁였다. 가상화폐 비트코인(BTC)은 지난 2월 6일 한때 17% 넘게 급락하며 6만 100달러까지 수직 낙하했다. 지난해 10월 사상 최고치 12만 달러와 비교하면 4개월 새 반토막이 났다.

이더리움(ETH)도 일주일 사이 30% 급락하며 심리적 지지선인 2,000달러(약 2,932만 원)를 하회(下回)했다. 이더리움은 지난 7일간 2,800달러(약 4,105만 원)에서 1,900달러(약 2,785만 원)까지 하락했으며, 한때 1,740달러(약 2,553만 원)로 9개월 만의 최저치를 찍었다. 금요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상위 암호화폐 중 가장 큰 주간 낙폭이다.

한국시간으로 지난 2월 6일 오전 6시 30분 기준 글로벌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3.79% 하락한 6만 3,592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2024년 10월 말 이후 약 15개월 만의 최저 수준이다.

알트코인(Altcoin)도 동반 급락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 가격은 13.76% 하락한 1,869달러로 2,000달러 선이 붕괴됐다. 리플(XRP)은 낙폭이 더 커 23.54% 급락한 1.17달러를 기록했다.

비아이엔스코인(BNB)은 13.80% 하락한 609달러, 솔라나는 15.06% 내린 79.53달러로 밀렸다. 문제는 이러한 충격이 다른 자산 가격까지 끌어내리면서 '죽음의 소용돌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4일 5,3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이 날 한때 4,900선까지 내준 점도 심상찮다. 원·달러 환율은 다시 1,470원선을 넘나들고 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당국은 리스크 확산을 막을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친화 정책을 내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본격적인 랠리를 시작해 2025년 10월 12만 6,00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올해 들어 하락 전환했다. 올해 누적 하락률은 20%를 넘었고, 고점 대비 낙폭은 약 48%에 달한다.

게다가 '디지털 금(金 | Gold)'이라는 서사(敘事)마저 무너져 바다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은(銀 | Silver) 역시 지난달 말 30% 급락한 데 이어 지난 2월 6일 16% 추가 하락했다.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거품 논란이 확산하면서 빅테크(Big Tech) 주기도 급락하고 있다. 구글(Google)이 올해 자본 지출을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리겠다고 밝히자 시간 외 거래에서 7% 하락했고, 아마존(Amazon)도 290조 원에 달하는 설비투자 계획 발표 이후 10% 급락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도 4.97% 떨어졌다.

이번 국제 자산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패닉(Panic | 공포)의 직접적 계기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30일(현지 시각) '케빈 워시(Kevin Warsh)' 전 연방준비제도(Fed | 연준) 이사를 차기 연준(Fed) 의장 후보로 지명에 있다. '케빈 워시' 연준(Fed) 의장 지명자가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 성향이라는 점이 가

격에 반영된 것으로 고금리와 유동성(Liquidity) 축소 우려가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대차대조표 축소론자인 '케빈 워시'가 금융긴축으로 돌아설 경우, 그동안 풍부한 유동성이 기대 과열 양상을 보였던 이른바 '에브리싱 랠리(Everything Rally | 모든 자산이 오르는 현상)'가 급격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한 것이다.

국내 증시는 물론 금, 은 등 원자재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에브리싱 랠리' 국면이 극점인 가운데, 가상자산은 이 같은 흐름에서 소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AI 시대로의 전환에는 이견이 있지만, 빅테크들의 막대한 투자가 상승한 수익을 낸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실물경제에서 주가가 오르내리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투자는 전적으로 개인 책임이기도 한다. 문제는 한국 증시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크다는 데 있다.

미국 증시가 조금만 꿈틀거리도 훨씬 큰 폭으로 출렁이게 된다. 일본 등 다른 국가들과 달리 지나치게 과민 반응한다. 한국 시장이 특히 취약하다는 점이다. 프로그램 매매 일시 중지인 '사이드카(Sidecar | 주식거래 일시 중단)'도 잦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의 주가마저 연일 5% 이상 급등락할 정도다.

이는 유독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고, 단타 위주의 매매가 성행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빛을 내 투자하는 '빛투'의 경우도 많다. 주식 매수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빌린 돈을 뜯는 신용거래용자는 지난달 30조 원을 처음 돌파한 뒤에도 지속적인 증가세다.

주가 하락 시 자동으로 매도(반대매

매)되는 구조로 인해 '변동성(Volatility)'을 더 키울 수밖에 없다. 당국은 신용거래 이용자 관리에 빈틈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는 한편 단타보다는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인센티브(Incentive) 등을 강구해야 한다.

문제는, 한국 시장이 특히 취약하다는 점이다. 코스피는 지난 2월 5일 외국인들의 5조 원대 순매도로 3.8% 하락했고, 2월 6일에도 오전 한때 4% 넘게 급락했다. 들썩이는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것도 시급하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월 5일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폭탄에 20원 가까이 상승한 데 이어 이날도 장중 1,474원까지 치솟았다. 한·미 간 관세 협의 이행 등에 대한 진통과 불확실성도 원화 가치의 취약성을 키우는 변수다. 환율이 다시 1,500선을 위협하게 되면 물가 상승과 기업 부담은 전 국민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까지 치달을 우려도 있다.

당국이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인 적극적·공격적 대응에 나서야만 할 이유다. 무엇보다 금융 전반의 불안으로 연결될 소지도 매우 크다. 국내 투자자들의 단기 투자 행태는 또 다른 문제다. 소비 감소와 설비투자 위축 등 실물경제로 전이(轉移)되거나 확산(擴散)되거나 않도록 정부와 투자자 모두 리스크(Risk)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만 할 때다.

적어도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실물경제로의 전이·확산으로 인한 고리가 몸통을 뒤흔드는 치문(鈔鑊)과 우둔(愚鈍)의 최악 상황만은 원천 차단해야만 한다.

작가·칼럼니스트(현,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 이사장협의회 회장·전, 소방준감)

설 연휴에 현명하게 집 비우는 관리법

설 연휴에 장기간집 비운다면 귀가전·후 모두 관리해야

여행 전에는 환기 안 되는 옷장의 곰팡이·냄새 방지 습기제거제 배치

여행 후에는 곰팡이제거제 사용해 회장실 곰팡이 간편하게 제거



◆설 연휴 동안 비워둔 집 청소의 핵심은 '눈에 안 보이는 사각지대'

설 연휴 동안 집을 비웠다면, 귀가 후 가장 먼저 회장실 환기와 청소를 해주는 것이 좋다.

집 안에서 위생 상태가 가장 빠르게 악화되는 공간이 화장실로, 장기간 환기가 되지 않으면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해 불쾌한 냄새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오랜 기간 집을 비운 경우에는 평소보다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곰팡이 발생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집 비우기 전에 냄새와 습기 미리 방지해야

싱크대 배수구에서 악취가 날 수 있어 집을 비우기 전에 관리해 두어야 한다. 싱크대는 구조상 배수관에 일정량의 물이 고여 있는데 싱크대를 사용하지 않는 동안 물이 증발하면 하수 가스가 배수관을 타고 올라와 악취를 일으킨다.

집을 비우기 전에 베이킹소다를 활용해 배수구 내부를 세척한 뒤 배수구 덮개로 밀폐하면 악취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가성비가브랜드 다의 '베이킹소다'는 생활 속 찌든 때와 묵은 때를 제거하는 강한 세정력을 갖고 있다.

▶월드컵공원 유니세프광장에서는 하늘공원 억새를 활용해 만든 힘차게 달려가는 붉은 말 상징 조형물과 나비 포토존 등이 전시된 '억새풀 자연미술 전시'가 열려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편지를 부치면 올 하반기 발송되는 '소원 우체통'도 운영된다.

▶14일(토)~18일(수) 오전 10~16시 ▶남산공원에서는 병오년 말띠 해의 의미를 되새기고 소망을 빌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총 4회)이, 21일(토) 14~16시에는 ▶보라매공원에서 놀이활동가와 함께 우리 고유의 문화를 체험해 보는 '끼치끼치 설날 두근두근 전통놀이마당'도 진행된다.

▶19일(토)~18일(수) 10~17시에는 유니세프광장에서 '설 운수대통 놀이마당'

도 열려 고리던지기, 사방치기, 굴렁쇠,

투호 등 9가지 전통놀이를 한자리에서 즐겨볼 수 있다.

▶서울식물원에서는 설 연휴 기간 기획전 <우리들의 자연, 행성적 공존>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주제로 한 현대미술 기획 전으로, 식물원 공간 전반에서 공존의 의미를 예술적으로 풀어낸다.

▶온실주제정원식물문화센터 프로젝트홀 2 등에서 설치미술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로, 16일(월)~18일(수) 10~17시 관람할 수 있다.

▶또 서울식물원은 전시 관람과 함께 엽서를 활용한 전시연계 참여형 상설 프로그램, 민속놀이 체험도 운영한다. 관람객은 엽서에 생각을 적어 공유하거나 북라운지에서 윷놀이 등을 즐기며 명절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따라 사전 예약 등 이용 방법이 다르므로 공원 방문 전 서울시 누리집, 공공서비스예약(yeyak.seoul.go.kr)을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시민들이 더 활기 치고 풍성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다채로운 문화예술 및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서울에서 연휴를 보내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차기와 활쏘기 등 '놀이마당'을 마련하고 시민을 맞는다.

▶서울공예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세종문화회관 등 주요 전시문화시설도 설 연휴 기간 휴무 없이 운영되며 전시와 예술 공연을 선보인다.

▶서울시는 개막 6주 만에 관람객 30만 명을 돌파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한국 패션아트 석구자 금기숙 작가의 서울공예박물관 전시 <금기숙 기증특별전 '댄싱, 드리밍, 앤라이트닝(Dancing, Dreaming, Enlightening)>과 세종문화회관 연극 <사의 친미>, <튜링머신>, 22일(일)까지 열리는 미국 샌디에이고 뮤지엄 특별전 <르네상스에서 인상주의 까지>를 추천했다.

▶연후 기간 운영되는 문화예술 및 전시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각 기관 누리집 또는 서울문화포털(culture.seoul.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숲·길동생태공원, 겨울숲 탐방 및 만들기 체험... 서울식물원 현대미술 기획전

▶6개 공원에서도 연후 내내은 기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설맞이 공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서울숲에서는 퀴즈를 풀며 공원을 누비는 자율탐방을 비롯해 전통놀이,

새해맞이 소원모빌 만들기 등 체험과 운영되며 15일(일) 생태학습장에서는 어린이와 보호자가 생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연후 중 매일 10~17시 지도를 따라 겨울 숲의 정취를 만끽하고 동식물을 관찰하는 '나도 서울숲 탐험가', 14일(토) 10~15시 총 4회에 걸쳐 대나무에 새해 소원을 적어 모빌로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4일(토)~15일(일) 커뮤니티센터 앞 수변쉼터에서는 윷놀이, 투호,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를 한자리에서 즐겨볼 수 있다.

▶15일(일) 9~17시에는 한겨울 공원 생태를 배우고 겨울에 만날 수 있는 생물을 살펴보는 '시민과학 공원생태 모니터링', 15~16시 30분 '설특별 곤충표본 체험교실'이 열린다.

▶강동구 ▶길동생태공원에서는 매일 10~17시(월요일 제외) 안내판을 따라 산책하며 생태 보존을 위해 지켜야 할 동식물을 찾고 퀴즈를 풀어보는 '생태 공원을 함께 지켜요',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생태 및 만들기 체험도 진행된다.

▶한국의 떡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떡 모양 비누를 만들어보는 '작은 실천, 에코리아프', 목화와 부엉이에 대해 공부하고 목화 관찰 및 부엉이 키링을 만들

▶16일(월) 9~17시에는 신촌생태공원에서는 '설연휴 체험교실'이 열리며, 17일(화) 10~17시에는 '설연휴 체험교실'이 열린다.

▶한국의 떡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떡 모양 비누를 만들어보는 '작은 실천, 에코리아프', 목화와 부엉이에 대해 공부하고 목화 관찰 및 부엉이 키링을 만들

▶18일(수) 9~17시에는 신촌생태공원에서는 '설연휴 체험교실'이 열리며, 19일(목) 10~17시에는 '설연휴 체험교실'이 열린다.

▶15일(일) 9~17시에는 신촌생태공원에서는 '설연휴 체험교실'이 열리며, 16일(월) 10~17시에는 '설연휴 체험교실'이 열린다.

www.thesegye.com

기자제보 : news@thesegye.com

● 회장 이채봉 ● 발행인 심귀영 ● 편집인 이채봉

● 편집국장 이장성 ● 마케팅본부장 이현진 ● 인쇄인 디엠코리아(주)

● 편집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62길 1 3층 (남신빌딩)

편집국/기사제보 : 1661-8385

광고국 : 02)717-7272

FAX : 02)717-7273

등록 : 2007년 3월 22일 창간: 4월 23일

등록번호 : 서울 50106

구독료 : 한달 15,000원 한부 10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